

대학생의 성인식에 관한 연구

0320

I. 머리말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영남대 학생 92명중 남자는 56명(60.9%), 여자는 30명(32.6%)이었고, 성별을 표기하지 않은 학생이 6명(6.5%)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별 분포는 표1과 같다.

표 1. 성별 응답자 수

성별	응답수(%)
남자	56(60.9)
여자	30(32.6)
무표기	6(6.5)
계	92(100.0)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분석은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17문항이었다.

III. 연구결과

1. 성폭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성폭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다가 7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상대방의 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다(21.7%), 좋아하는 표현이 지나쳐서 오해하는 것일 뿐이다(2.2%), 기타(1.1%), 모르겠다(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성폭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구분	응답수(%)
좋아하는 표현이 지나쳐서 오해하는 것일 뿐이다	2(2.2)
상대방의 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다	20(21.7)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다	67(72.8)
기타	1(1.1)
모르겠다	1(1.1)
계	91(100.0)

- 여성의 신체나 외모에 대한 모욕이나 조롱 예) “엉덩이가 커서 애 잘 낳겠다” “얼굴값 한 다”
- 여성다움에 대한 강요 예) “여자는 자고로 순종적이고 청순해야지” “여자가 너무 나선다”
- 여성들을 소외시키거나 불쾌하게 하는 음담패설 및 음란 가요 등
-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능력, 자질등을 과소평가하는 발언
예) “여자가 많으면 일이 안 된다” “인간에는 여자, 남자, 여자공대생 세 종류가 있다”

2. 위와 같은 발언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가?

박스 안의 내용을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대체로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가

동일하게 32.6%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16.3%), 그렇지 않은 편이다(9.8%), 그렇지 않다(3.3%), 모르겠다(3.3%), 매우 그렇지 않다(2.2%)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동의하는 비율(81.5%)이 반대하는 비율(15.3%)보다 높았다.

표 4.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가?

구분	응답수(%)
매우 그렇다	15(16.3)
대체로 그렇다	30(32.6)
약간 그렇다	30(32.6)
그렇지 않은 편이다	9(9.8)
그렇지 않다	3(3.3)
매우 그렇지 않다	2(2.2)
모르겠다	3(3.3)
계	92(100)

3. 위와 같은 발언을 학내 구성원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가?

박스 안의 내용을 학내 구성원으로부터 들은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는 들은 적이 있다(59.8%), 없다(27.2%), 모르겠다(13.0%)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위 발언을 학내 구성원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가?

구분	응답수(%)
있다	55(59.8)
없다	25(27.2)
잘 모르겠다	12(13.0)
계	92(100.0)

- 남성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모욕이나 조롱 예) 기생오라비 같다
- 남성다움에 대한 강요 예) 남자가 왜 그렇게 출썩거리나? 예) 남자가 그런 일도 못하나?
- 다수의 여성들이 소수의 남성을 소외시키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발언 또는 행위

4. 남성에 대한 성폭력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박스 안의 글에서 남성에 대한 성폭력인 것을 고르는 문항에서는 다수의 여성들이 소수의 남성을 소외시키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발언 또는 행위가 5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남성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모욕이나 조롱(26.7%), 남성다움에 대한 강요(22.9%)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남성에 대한 성폭력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구분	응답수(%)
남성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모욕이나 조롱	28(26.7)
남성다움에 대한 강요	24(22.9)
다수의 여성들이 소수의 남성을 소외시키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발언 또는 행위	53(50.5)
계	105(100.0)

- 여성의 신체를 감상하듯 아래 위로 훑어보거나 결눈질한다
-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지속적으로 강요한다
- 여성 앞에서 음란물(누드사진, 포르노 만화, 비디오, 포스터 등)을 보거나 돌려보거나 부착한다
- 휘파람, 교성, 침을 삼키는 소리 등 성에 관련된 음란한 소리를 여성 앞에서 낸다
- 통신망(pc통신, 삐삐, 전화 등)을 통해 성적 표현을 하거나 음란물을 보낸다
- 여성 앞에서 옷을 입은 채로 성기나 성기주변을 만진다 또는 성기를 꺼내놓고 보란 듯이 자위 행위를 한다

5. 위의 행동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가?

박스 안의 내용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다(56.5%), 대체로 그렇다(34.8%), 약간 그렇다(6.5%), 모르겠다(1.1%)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99.9%가 성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표 9. 위의 행동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가?

구분	응답수(%)
매우 그렇다	52(56.5)
대체로 그렇다	32(34.8)
약간 그렇다	6(6.5)
그렇지 않은 편이다	0(0.0)
그렇지 않다	0(0.0)
매우 그렇지 않다	0(0.0)
모르겠다	1(1.1)
계	92(100.0)

6. 위의 행동을 학내 구성원으로부터 당한 적이 있는가?

박스 안의 내용을 실제로 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없다(62.0%), 있다(23.9%), 모르겠다(14.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위의 행동을 학내 구성원으로부터 당한 적이 있는가?

구분	응답수(%)
있다	22(23.9)
없다	57(62.0)
잘 모르겠다	13(14.1)
계	92(100.0)

- 단체 모임에서 유독 여성에게만 학업이나 업무와는 상관없는 잡일을 시킨다
예) 모꼬지에서 여자만 부엌일을 시킨다. 차 심부름
- 세터, 동문회 등의 단체 모임에서 여성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다
- 여러 모임에서 여성을 소외시킨다
- 술자리에서 남자 사이에 끼어앉거나 술시중을 들게 한다

7. 위와 같은 행동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가?

박스 안의 내용을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약간 그렇다(37.0%), 대체로 그렇다(33.7%), 매우 그렇다(17.4%), 그렇지 않다(7.6%), 그렇지 않은 편이다(2.2%), 모르겠다(2.2%) 순으로 나타났다. 역시 성폭력이라고 동의하는 비율(88.1%)이 반대하는 비율(9.8%)보다 상당히 높

계 나타났다.

표 12. 위와 같은 행동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가?

구분	응답수(%)
매우 그렇다	16(17.4)
대체로 그렇다	31(33.7)
약간 그렇다	34(37.0)
그렇지 않은 편이다	2(2.2)
그렇지 않다	7(7.6)
매우 그렇지 않다	0(0.0)
모르겠다	2(2.2)
계	92(100.0)

8. 위와 같은 행동을 학내 구성원으로부터 당한 적이 있는가?

박스 안의 행동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없다(53.3%), 있다(35.9%), 모르겠다(9.8%)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위와 같은 행동을 학내 구성원으로부터 당한 적이 있는가?

구분	응답수(%)
있다	33(35.9)
없다	49(53.3)
잘 모르겠다	9(9.8)
계	91(100.0)

- 의도적으로 가슴, 엉덩이, 성기 쪽으로 기대오거나 손을 댄다 또는 자신의 성기를 몸에 접촉시킨다
- 단체와 모임의 술자리에서 남학우가 불쾌할 정도로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손을 자거나 안으려 한다. 혹은 술 취한 척 몸을 기대오거나 손으로 몸을 더듬는다
-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가한다
- 권위를 빌미로 접근해서 신체접촉을 한다 또는 신체접촉을 요구한다

9. 위와 같은 행동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가?

박스 안의 내용을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다(62.0%), 대체로 그렇다(60.4%), 약간 그렇다(6.5%), 모르겠다(1.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9.9%가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위와 같은 행동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가?

구분	응답수(%)
매우 그렇다	57(62.0)
대체로 그렇다	28(60.4)
약간 그렇다	6(6.5)
그렇지 않은 편이다	0(0.0)
그렇지 않다	0(0.0)
매우 그렇지 않다	0(0.0)
모르겠다	1(1.1)
계	92(100.0)

10. 위와 같은 행동을 학내 구성원으로부터 당한 적이 있는가?

박스 안의 내용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없다(60.9%), 있다(22.8%), 모르겠다(15.2%)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위와 같은 행동을 학내 구성원으로부터 당한 적이 있는가?

구분	응답수(%)
있다	21(22.8)
없다	56(60.9)
잘 모르겠다	14(15.2)
계	91(100.0)

- 모꼬지 방에서 자고 있는데 가슴이나 성기를 만졌다 또는 강간했다(강간하려했다)
- 자취방 등 혼자 살고 있는 곳에서 기다리거나 찾아와 강제로 키스나 애무를 했다 또는 강간했다(강간하려했다)
- 모꼬지나 술자리 등에서 바깥 등 으스스한 곳에서 강제로 키스나 애무를 했다 또는 강간했다(강간하려했다)
- 동아리방이나 연구실, 강의실 등 학교 밀폐된 곳에서 혼자있는데 들어와서 강간했다(강간하려했다)

11. 위와 같은 행동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가?

박스 안의 내용을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다(91.3%), 대체로 그렇다(6.5%), 매우 그렇지 않다(1.1%), 모르겠다(1.1%) 순으로 나타났다. 역시 응답자의 98.8%가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위와 같은 행동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가?

구분	응답수(%)
매우 그렇다	84(91.3)
대체로 그렇다	6(6.5)
약간 그렇다	0(0.0)
그렇지 않은 편이다	0(0.0)
그렇지 않다	0(0.0)
매우 그렇지 않다	1(1.1)
모르겠다	1(1.1)
계	92(100.0)

12. 위와 같은 행동을 학내 구성원으로부터 당한 적이 있는가?

박스 안의 내용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없다(79.3%), 잘 모르겠다(10.9%), 있다(8.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위와 같은 행동을 학내 구성원으로부터 당한 적이 있는가?

구분	응답수(%)
있다	8(8.7)
없다	73(79.3)
잘 모르겠다	10(10.9)
계	91(100.0)

13. 성폭력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성폭력의 기준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피해자의 합리적, 주관적인 판단이 5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준이 불명확하다(25.0%), 객관적, 물리적 기준(15.2%), 기타(1.1%), 모르겠다(1.1%)

순이었다. 즉, 성폭력의 기준을 객관적인 기준보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비중을 더 많이 두었다.

표 20. 성폭력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구분	응답수(%)
객관적, 물리적 기준	14(15.2)
피해자의 합리적, 주관적인 판단	53(57.6)
기준이 불명확하다	23(25.0)
기타	1(1.1)
모르겠다	1(1.1)
계	92(100.0)

14. 성폭력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성폭력의 원인을 묻는 문항에서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2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성충동을 참지 못해(24.2%), 성의 상품화와 퇴폐문화 만연(23.8%), 심한 노출 등 유혹(9.0%), 성폭력 가해자가 정신이상자이다(5.8%), 의사소통의 부재(5.4%), 좋아한다는 표현이 지나쳐서(4.0%), 남성다움의 과시(2.2%) 순이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성에 대한 바른 인식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한다면 그만큼 성폭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21. 성폭력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구분	응답수(%)
심한 노출 등 유혹때문	20(9.0)
성충동을 참지 못해	54(24.2)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57(25.6)
좋아한다는 표현이 지나쳐서	9(4.0)
의사소통의 부재	12(5.4)
성폭력 가해자가 정신이상자이기 때문	13(5.8)
남성다움의 과시	5(2.2)
성의 상품화와 퇴폐문화 만연	53(23.8)
계	223(100.0)

15. 학내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여기서 ‘학내 성폭력’이란 학교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일어나거나 학내 구성원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한다)

학내 성폭력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87.0%가 없다고 하였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9.8%,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2.2%였다.

표 22. 학내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구분	응답수(%)
예	9(9.8)
아니오	80(87.0)
모르겠다	2(2.2)
계	91(100.0)

15-1. 학내 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는가?(복수선택가능)

학내 성폭력을 경험한 학생에게 가해자가 누구였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남자선배(25.0%), 남자교수(18.8%), 모르는 사람(18.8%) 순이었고, 그외 여자교직원, 남자교직원, 여자후배는 각각1.1%로 나타났다.

표 23. 학내 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는가?

구분	응답수(%)
여자교수	2(12.5)
남자교수	3(18.8)
여자교직원	1(6.3)
남자교직원	1(6.3)
여자선배	1(6.3)
남자선배	4(25.0)
여자동기	0(0.0)
남자동기	0(0.0)
여자후배	1(6.3)
남자후배	0(0.0)
모르는 사람	3(18.8)
계	16(100.0)

15-2. 학내 성폭력을 경험한 곳은 어디였는가?(복수선택 가능)

학내 성폭력을 경험한 장소를 묻는 문항에서는 강의실(27.3%), MT와 동아리방, 기타가 각각 18.2%로 나타났고, 뒷풀이 등 술자리, 학내 어두운 밤거리가 각각 9.1%로 나타났다.

표 24. 학내 성폭력을 경험한 곳은 어디였는가?

구분	응답수(%)
뒷풀이 등 술자리	1(9.1)
MT	2(18.2)
과방(학생회실)	0(0.0)
동아리방	2(18.2)
강의실	3(27.3)
학내 어두운 밤거리	1(9.1)
학내 식당	0(0.0)
기타	2(18.2)
계	11(100.0)

16. 자신이 혹은 주변 사람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혹은 성폭력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자신 혹은 주변 사람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화를 내고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가 4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다(10.9%),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9.8%),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적으로 해결한다(6.5%), 모른척 혹은 없었던 것처럼 넘어간다(5.4%), 총여학생회(여학생회) 등 학생회에 신고해 공개적으로 해결한다(3.3%), 모르겠다(3.3%), 기타(2.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황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가 있으며,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25. 자신이 혹은 주변 사람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혹은 성폭력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구분	응답수(%)
모른척 혹은 없었던 것처럼 넘어간다	5(5.4)
그 자리에서 바로 화를 내고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다	38(41.3)
나중에 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다	10(10.9)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고 함께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	9(9.8)
총여학생회(여학생회) 등 학생회에 신고해 공개적으로 해결한다	3(3.3)
성폭력 상담소 등 외부 성폭력 전문기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	8(8.7)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적으로 해결한다	6(6.5)
기타	2(2.2)
모르겠다	3(3.3)
계	92(100.0)

17. 학내 성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복수선택 가능)

학내 성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성폭력 신고를 장려하여 성폭력을 공개적으로 해결하면서 인식을 높여야 한다(2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성폭력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24.0%), 성폭력에 대한 학칙을 제대로 만들어 제도적으로 학내 성폭력을 규제해야 한다(20.2%), 대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19.7%), 기타(1.1%), 모르겠다(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 학내 성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구분	응답수(%)
성폭력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44(24.0)
성폭력 신고를 장려하여 성폭력을 공개적으로 해결하면서 인식을 높여야 한다	45(24.6)
성폭력에 대한 학칙을 제대로 만들어 제도적으로 학내 성폭력을 규제해야 한다	37(20.2)
대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36(19.7)
성폭력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17(9.3)
기타	2(1.1)
모르겠다	2(1.1)
계	183(100.0)